

코로나19가 바꾼 택배 풍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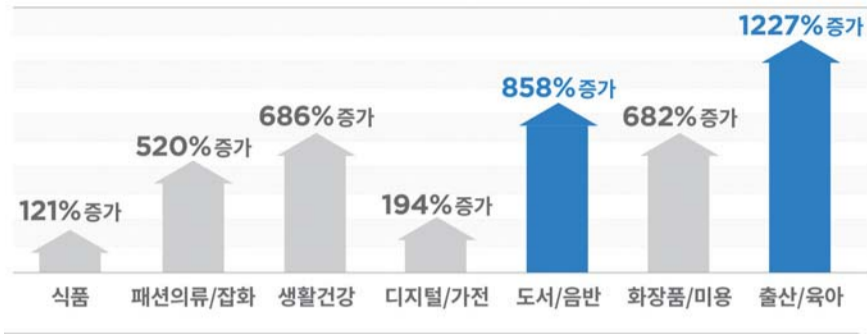
육아용품·퀵보드·휠 주문 '굉충'

CJ대한통운 일상생활 리포트

대구·경북으로 배송된 생필품 급증
전년비 출산·육아용품 1227% ↑
대중교통 대신 1인 교통수단 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대구·경북 지역에 지난 3~4월 당시 전국으로부터 '온기'가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간 가교 역할은 택배가 맡았다. CJ대한통운이 코로나19로 인해 고강도 거리두기를 했던 지난 3~4월 택배 물동량을 분석해 28일 내놓은 '일상생활 리포트 PLUS'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에서 대구와 경북지역으로 배송된 개인택배의 경우 출산·육아용품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227%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서·음반 제품도 1년전 3~4월에 비해 858% 늘어났다. 해당 기간 이동이 제한되고, 집에 머무는 대구·경북지역 시민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친척, 친구, 지인 등이 방방곡곡에서 생필품이나 '집콕족'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배송하는

2020년 3월-4월 제품군별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상기 데이터는 택배 물량 전체 데이터 기반이 아닌 CJ대한통운 택배 물량 데이터 분석 기반입니다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생활건강제품(686%), 화장품·미용용품(682%), 패션의류·잡화(520%) 등 일상생활 관련 제품군도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대중교통 대신 자차 이용률이 높아졌다는 것도 택배 물동량을 통해 추정 가능하다. 한 예로 차에서 숙박하는 '차박' 문화 확산으로 차박매트 배송량은 329% 증가했으며, 간단하게 여행짐을 챙길 수 있는 보스톤백 물량은 158% 증가했다. 이와 함께 차량 내비게이션은 80%, 후방카메라는 42%, 트렁크 정리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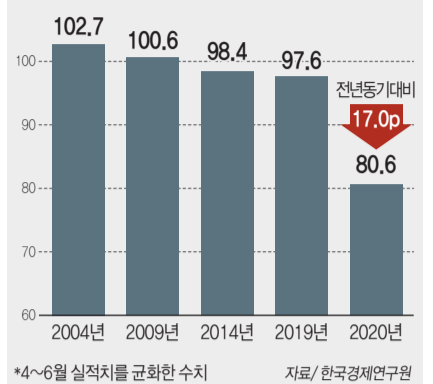
53% 각각 증가하는 등 자동차 관련 용품 배송 증가세도 눈에 띄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대신 '1인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현상 역시 택배를 통해 엿볼 수 있었다. 특히 킥보드는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했으며, 3월 킥보드 물량은 고강도 거리두기 직전인 2월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전거 용품(60%), 전동휠(54%) 배송도 늘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5월에는 2018년과 2019년에 자체 배송한 25억5000만 상자의 물품 정보를 731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국내 최초의 택배 빅데이터 분석 리포트를 발간한 바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2분기 고용쇼크 40년만에 최악

기업경기실사지수 7월 전망치 73.7
2분기 고용 실적 BSI, 17.0p 감소

2분기 고용실적 BIS 추이



*4~6월 실적치를 균화한 수치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7월 전망치는 73.7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달(68.9) 대비 소폭(+4.8p) 상승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기준선 100을 크게 밑도는 데 그쳤다. 6월 실적치 역시 74.2로 전월 대비 소폭(+3.6p) 올랐으나 동월 기준 22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62개월 연속 기준선 아래 머물며 부진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7월 전망치 부문별로는 내수(74.5), 수출(79.2), 투자(78.4), 자금(87.6), 재고(107.1), 고용(84.5), 채산성(80.5) 등 전 부문이 기준선 미만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74.8)은 전월 대비 상승(+12.7p)하였으나 서비스업이 속한 비제조업(72.4) 체감경기는 전월 대비 악화(-6.4p)됐다. 기업들은 코로나19 충격 장기화에 따른 생산 활동 부진 여파로 전기·가스 판매량 및 유통 물량이 크게 감소하여 내수 경기가 여전히 어렵다고 응답했다. 종합경기 전망은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되었지만 제조업 재고전망(112.9)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09년 3월(115.2)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개선되었던 소비심리가 다시 위축되고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등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국내외 상품 수요 회복세가 둔화돼 기업들이 재고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설명

했다. 6월 실적치는 74.2을 기록하며 62개월 연속 기준선 아래 머물렀다. 부문별로는 내수(76.8), 수출(78.7), 투자(77.6), 자금(86.6), 재고(107.1), 고용(83.7), 채산성(82.6) 등 전 부문에서 기준선 미만을 기록했다. 특히, 2020년 2분기 고용 실적 BSI는 평균 80.6으로 전년도 2분기(평균 97.6) 대비 무려 17.0p나 감소했다. 기업경기동향조사(BSI)를 시작한 1980년 이래로 역대 최저치다. 실제로 기업들은 코로나19 이후 정기 공채를 폐지하고 상시채용으로 전환하고 있어, 기존의 일자리며져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망치가 다소 개선되었지만 국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하반기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따른 더블딥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경기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장기화되는 실물 충격 및 전례없던 고용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욱 기자 juk@

美 경제, 올해 역성장 불가피... "회복 미약"

미국 경제, 올 3분기 이후 회복 전망
코로나19 재확산 등 리스크요인 산적
유로지역 경제 성장률 -3.6% 기록

미국의 경제활동이 부분적으로 재개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회복 모멘텀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V자형' 빠른 회복보다는 완만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미국 및 유로지역의 경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에 따르면 상반기 중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각종 대응조치로 큰 폭으로 위축됐다.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68%를 구성하는 개인소비는 4월 오락 서비스와 외식·숙박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9.2%, 51.4% 급감했다. 4월 실업률은 14.7%로 2차 세계대

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물가(PCE 물가상승률)도 수요 위축과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크게 하락했다. 금리(국채 10년)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와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및 무제한 자산매입 조치 등에 영향을 받았다. 주가만 경제활동 재개 및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 등에 힘입어 전 고점에 근접했다. 미국 경제는 올해는 큰 폭의 역성장이 불가피하겠지만 3분기 이후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과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리스크요인이 산적해 있어 회복속도는 더딜 수 있다. 한은은 "대부분 지역이 부분적, 단계적으로나마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지만 소비·생산 관련 고빈도 지표에 나타난 경기회복 모멘텀은 아직 미약하다"

며 "향후 미국 경제의 회복경로는 V자형 빠른 회복보다는 완만한 회복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전기대비)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6%를 기록했다. 1995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주요국 대부분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유가 급락 등의 영향으로 연초 1% 초중반에서 5월 중 0.1%까지 하락했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심각하게 위축된 유로지역 경제는 봉쇄조치의 점진적 완화와 ECU 및 회원국별 정책대응에 힘입어 하반기부터 완만하게 회복할 것"이라며 "향후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봉쇄조치 수준의 변동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하방리스크가 크게 우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채용한파에도 "IT인재 없어서 못 뽑아요"

저축은행업,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장
IT 경력직 채용 이어 내달 신입 모집

저축은행 업계가 전 사회적인 채용 한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금융 서비스 확장을 위한 정보기술(IT) 인재 채용을 잇달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한 금융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데다 올 하반기 오픈뱅킹 서비스가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IT 인재를 꾸준히 충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이달 IT 부문 경력 직원을 채용한 데 이어 오는 7월에는 IT 신입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우선 중앙회는 오는 7월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전형 등 거쳐 필기, 면접 등을 진행한 뒤 9월에 채용발령을 낸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도 IT 인재 모시기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SBI저축은행이 과장·차장급의 IT 기획 부문 경력직원을 채용 중이다. IT 기획 및 전략 수립, 예산 수립 및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관련 업무의 경력이 최소 3년 이상이고 전반적인 IT 시스템 지식을 갖춘 인재를 찾는다.

저축은행 업계에서 IT 인재 채용을 꾸준히 하는 이유는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전반적으로 확장되고 있어서다. 중앙회의 경우 저축은행 업계의 공동 모바일뱅킹 앱 SB특별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해당 앱을 통한 신원 증명 간소화 서비스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기도 했다. 앞서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앱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계좌를 개설할 때 마다 다행계좌이체인증, 휴대폰 본인확인 등 중복적인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반복해야 했다. 중앙회는 이 과정을 생체인증으로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높였다. 서비스는 오는 12월 출시가 목표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도 모바일 앱을 개편하거나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OK저축은행은 지난 26일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을 개선하고 대출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의 여러 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저축은행중앙회

"대구·경북 여행하면 만원 돌려드려요"

야놀자-한국철도공사 기획전

야놀자가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대구와 경북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구 경북 만원의 행복여행' 기획전을 진행한다. 야놀자는 지난해 6월 한국철도공사와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여행 및 레저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해왔다. 이번 기획전은 '2020 특별 여행주

간'의 일환이다. 야놀자는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대구, 경북지역행 KTX(김천구미, 신경주, 포항, 동대구행)와 숙소를 함께 예약하면 1만원 쿠폰을 지급한다. 쿠폰은 8월 18일 기준으로 해당 상품의 이용이 완료된 모든 고객에게 지급되며, 야놀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전 상품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KTX만 이용하는 경우에도 결제금



액의 1%를 야놀자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또한, 간편결제 앱 차이로 결제할 경우 5% 추가 할인(최대 2000원)도 받을 수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